

실험뉴스

OKBANEWS

2023 August No.835

www.okbacanada.com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Magazine



실험 창립 50주년과 조합 창립 40주년을 축하합니다

‘함께’하면 더 많은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Together, more things are possible.



Publisher : Ki-Ho Shim / Publication Mail Agreement No : 41140510

Return Undeliverable Canadian Address to :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169 The West Mall, Etobicoke, ON. M9C 1C2 Tel(416)789-7891 Fax(416)789-7834



www.okbacanada.com

OKBA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OKBA 회장 : 심기호 (Ki - Ho Shim)

OKBA 부회장 : 신재균 (Jae Gyun Shin)

이사회 : 이사장 한갑준 / 부이사장 허창훈

감사 : 류무열 / 류승진

사업개발팀 : 이주녕 (Brian Lee) brianjn1108@okba.net

홍보/디자인팀 : 실장 김광일 (Ted Kim) tongilisysj@yahoo.com

현미영 (Mimi Hyun) design@okbacanada.com

사무실 : Tel (416) 789 - 7891 / Fax (416) 789 - 7834

KBA

한인협동조합

Sincere Trading of KBA

KBA 운영이사장 : 심기호 (Ki - Ho Shim)

KBA 부이사장 : 공석

운영이사 : 나경찬 / 류무열 / 신재균 / 심기호 / 한갑준 / 허창훈

감사 : 장육용 / 장해민

매장 총괄부장 : 권혁선 (Hyuk Sun Kwon)

사무장 : 줄리아 배 (Julia Bae)

사무실 : Tel (416) 789 - 7544 / Fax (416) 789 - 5013

매장 : Tel (416) 867 - 1444

C O N T E N T S

03 - 04 / 본부협회 회장 선거 9월 18일

05 - 06 / 실험 / 조합 창립 행사 성료

07 / 50주년 행사 환영사(회장)

08 / 실험 / 조합 창립 행사 주요 사진

09 / OKBA Golf Tournament 공고

10 / 임시총회 소집 공고

제28대 정 · 부회장 입후보 등록 및 선거일정 공고

11 / 국내 소매업 경기 회복력 세계 우위

12 - 13 / 임금 / 고용에 관한 연방법 개정

아동 대상 식음료 광고 규제

14 - 15 / “州間 교역장벽 일부 없애야” CFIB 주장

쿠쉬타르 영업실적 매우 양호

16 / 6종 에너지 드링크 리콜

17 - 18 / 불법 베이핑 범람하는 미국

19 - 21 / 2023 올해의 캐나다 우수 상품 25選

22 / KBA Special Sale (August 15 - September 14)

23 / DIRECTORY

본부협회 회장 선거 9월 18일

선거세칙 개정, 조건부 기탁금 반환 논의



▲ 협회 역사상 우편투표가 최초로 도입 실시된 2017년 9월 21일 제 25대 본부협회 정.부회장 선거. 사진은 당시 선관위원들이 투표가 마감된 후, 우편투표와 현장투표 기표 용지를 개.검표하는 장면이다.

본부협회 정.부회장 선거일이 오는 9월 18일(월)로 정해졌다. 본부협회 이사회 산하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3일(월) 선거 준비 관련 회의를 열고 날짜를 확정지었으며 8월에 개최되는 이사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남기고 있다. 회의는 한갑준 이사장의 주재하에 3명의 선관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일정 전반에 걸친 이슈를 빠짐없이 다루었다. 선관위원 3명은 본부협회 이사회 부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허창훈 선관위원장을 비롯해 김정선, 배종민 이사로 구성돼 있다.

오후 1시부터 2시간에 걸쳐 오찬을 겸해 열린 선관위 회의에서는 후보자 기탁금 3,000달러의 조건부 반환도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졌는데 전체 유효투표의 10% 이상 득표하면 전액을 후보에게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복수 후보의 경선일 경우, 당락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단독후보 인준의 경우에도 인준 거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단순히 말하면 경선이든 단독후보 인준이든 10%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후보자가 공탁금 3,000달러를 돌려받는다는 의미다.

본부협회 회장은 임기가 2년이므로 매 2년마다 선거를 실시하는데 올해 2023년 9월에 선거를 치르게 된다. 관련 정관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 6장(집행부) 제 17조 : 임기는 취임하는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제 9장(선거) 제 26조 2항 : 본 회 정.부회장 선거는 회기말(8월 31일) 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이날 모임에서는 선거일을 확정된 후 선거 준비를 위한 일차적 과제인 현행 선거시행세칙 개정안을 검토했다. 현행 선거세칙은 2019년 10월 3일 개정이 마지막이었으며 이후 지난해 말에 개정 통과된 정관과 이사회 내규 등의 내용과 일치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우선 선관위원 7명이 3명으로 축소됐기 때문에 이 조항을 선거 세칙에서도 맞춰야 했으며 직선 이사. 감사를 다루는 조항에서도 일반 감사는 3인에서 2인으로 축소된 정관 개정과 부합하도록 개정했다.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행	개정
제 2조(선거관리위원회) ①본회 정관 제 9장 제 28조에 의거, 7명 의 선관위원을 선출해...	제 2조(선거관리위원회) ①본회 정관 제 9장 제 28조 제 1항에 의거, 3명 의 선관위원을 선출해...
제 14조(선거일) ... 총회에서 선출하는 6인의 이사와 제 8장 제 24조 제 2항 의 규정에 의거해 총회에서 선출하는 일반 감사 3인 은...	제 14조(선거일) ... 총회에서 선출하는 6인의 이사와 제 8장 제 24조 제 1항 의 규정에 의거해 총회에서 선출하는 일반 감사 2인 은...

그리고 여기에 추가될 세칙 개정 내용으로는 앞서 언급한 기탁금 반환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는 것이다. 기탁금 관련한 선거세칙 현행 조항은 제 4조(등록조치) ②항(기탁금 처리)이다.

“기탁금은 후보 등록필증 발급 후 즉시 본회 거래은행 계좌로 입금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 단서 문구인 “기탁금은 후보자가 유효투표의 10% 이상을 득하거나 단독후보인 경우 인준 지지 10% 이상을 득하면 후보에게 전액 반환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게 된다. 문구대로 해석하면 당락이나 인준 여부에 무관하다.

정.부회장 선거 공탁금은 지난 2010년에 개정된 적이 있었다. 당시 이사회 논의에서 “재정적 여유가 없으나 능력과 자질이 뛰어난 인재의 입후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3000달러를 100달러로 대폭 하향 조정하는 주장이 관철됐던 것이다. 이후 2년 뒤에는 본 취지인 “무책임한 입후보의 난립”을 막기위한 장치로서 공탁금 3000달러를 다시 도입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에서는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된 협회의 현재 위상은 무보수 봉사를 자처하는 능력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부담으로 작용하는 기탁금 3,000달러 반환을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는 우려해왔던 ‘후보난립사태’도 적절히 차단할 수 있는 효과 또한 거둘 수 있는 절충적 제도로 볼 수 있다.

선거세칙 신설 조항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행	개정
<p>제 4조 (등록조치) ②(기탁금 처리) 기탁금은 후보 등록필증 발급 후 즉시 본회 거래은행 계좌로 입금 되어야 한다.</p>	<p>제 4조 (등록조치) ②……(좌동)… 입금되어야 한다. 단, 기탁금은 후보자가 경선의 경우 유효투표의 10% 이상을 득하거나 단독후보인 경우 인준 지지 10% 이상을 득하면 후보에게 전액 반환된다.”</p>

이상의 개정안은 오는 8월 16일(수) 개최할 정기 이사회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관 제 28조 제 4항은 “... 선거세칙은 이사회에서 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사회 내규 제 7조는 “선관위는 ... 선거 세칙을 기안하여 이사회 인준을 거쳐 선거를 실시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선관위에서 확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향후 선거 일정을 잠정적으로 정리해 본다. 날짜는 선거세칙 규정에 따른 것이다.

● **회비 납부 마감 : 8월 15일 (화)**

제납 및 당해년도 회비 납부가 완료돼야 유권자 자격이 주어지며 유권자 명부 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이 날을 납부 마감으로 정함.

● **등록기간 공고 : 8월 18일 (금)**

“선거일로부터(*9월 18일) 최소한 25일 이전에 등록기간을 공고한다”는 규정과 경선일 경우 우편물 발송 및 기표용지 반송 기간을 고려함.

● **등록 마감 : 8월 28일 (월)**

후보등록 기간은 최소 10일 이상 주어져야 한다는 규정에 의함.

● **우편투표 준비 : 8월 28일 (월) ~ 8월 30일 (수)**

회비 납부자를 기준으로 유권자 명부 작성 완료 및 유권자에게 투표용지 재증 우편물 발송

● **기표용지 반송 및 우편물 접수 마감 : 9월 15일 (금)**

● **선거를 위한 임시총회 : 9월 18일 (월)**

현장투표 희망자를 고려한 선거 당일 9월 18일 임시총회를 개최. 9월 15일 마감한 우편투표 용지와 현장투표 용지를 함께 섞어 개표작업을 하고 당선자를 확정 발표함.

이상의 일정은 복수 후보가 나선 경선의 경우에 진행되는 일정이며 1차 후보 등록 기간에 입후보자가 한 명도 없을 경우 2차 공고를 발표해 후보 등록을 진행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이미 상당 시일이 경과해 우편투표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복수 후보가 등록됐을 경우에 임시총회 당일(9월 18일) 현장투표로만 당선자를 선출한다. 그리고 정기총회에 갈음해 전체 유권자의 5% 이상 참석해 성원이 된 후 현장투표를 실시한다.

이밖에 2차 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1차 혹은 2차 공고에서 단독 후보가 있을 수도 있다. 단독 후보인 경우는 우편 투표 혹은 임시총회는 필요치 않으며 10월 정기총회에서 해당 후보에 대한 인준투표를 치르면 된다.

인준은 성원된 참석자(정회원 5% 이상)의 과반수 찬성으로 인준을 득해 당선된 것으로 본다. 인준에 실패하면 즉각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선거세칙에는 2주 이내) 회장 후보를 선출해 인준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본부협회 28대 회장 선거가 9월 18일로 정해졌다. 이사회 승인을 남기고는 있지만 달라질 여지는 없어 보이며 과연 복수 후보 경선이 될지, 단독 후보 인준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참고로 협회 역사상 회장 단독 후보 인준은 모두 7차례가 있었다. 이 중 한 차례만 총회에서 인준이 부결됐고 나머지는 모두 가결됐었다. 또, 단독 후보에 대한 인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관위가 당선을 발표해 법정 분쟁까지 간 끝에 외부 기관의 관리 감독하에 복수 후보를 놓고 재선거를 치른 뼈아픈 역사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현재의 심기호 회장의 경우, 지난 2021년 단독후보였음에도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우편 투표까지 했던 것은 인준 절차를 밟아야 할 정기총회를 팬데믹으로 인해 개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심회장은 당시 우편투표와 현장투표를 포함해 총 유효투표 285표 중 273표라는 압도적 지지(96%)의 인준을 득했다. ■

실협 / 조합 창립 행사 성료

더그 포드 수상 축하 동영상 보내



본부협회 임원들이 원로 자문위원들을 모시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앞줄 좌로부터 원종필 회장(1991), 백경락 이사장(1984) 한갑준 현 이사장, 심기호 현 회장, 이형인 회장(1980), 주창균 회장(1999), 송재규 이사장(1994)

실협 창립 50주년, 조합 창립 40주년 행사가 내실있고 격조있게 잘 치러졌다. 지난 8월 2일 (수) 저녁 6시부터 쏠힐 소재 한식당 사리원의 2층 홀에서 약 3시간에 걸쳐 진행된 행사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나가며 외부인들의 아낌없는 축하 메시지에 고무됐다.

본부협회와 지구협회 현역 임원들과 직원들은 그간 행사 준비에 열정을 쏟았으며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50주년의 오랜 역사를 자랑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깊은 의미를 담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두 조직의 산파역과 초기 기반 다지기에 기여했던 선배 자문위원들의 노고에 진정 감사의 자리를 되도록 최대의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아울

러 협회와 조합 발전의 지난 역사를 지켜보며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준 한인 커뮤니티 주요 단체의 수장들과 비즈니스에서 긴 세월 신뢰를 지켜온 핵심 공급사 관계자들을 초대해 더불어 축하하고 즐기는 잔치 분위기를 연출했다. 참석 인원은 행사 준비 인력인 직원 6명을 포함해 100여 명이였다.

행사 시작 시간 전부터 속속 당도한 내.외빈들은 오랜만에 대면하는 동료, 선배들과 밀린 정담을 나누느라 바빴으며 연로한 자문위원들에게는 거동이 불편해 한참을 못만났던 과거의 친우들을 한꺼번에 만나는 좋은 기회의 자리가 됐다.

무대 전면에 창립 역사를 가리키는 숫자 40과 50을 형상하는 풍선이 띄어진 모습은 시각적으로 강한 인상을 받게 했다. 캐나다한인상공실업인총연합회(UKCIA)와 KEB하나은행에서 축하 화환을 보내와 행사장을 장식했다.

20여분의 자유로운 환담을 즐긴 후 1부 순서인 축하 연설이 시작됐다. 한갑준 이사장이 첫 연설자로 나섰고 이어 두 조직의 리더를 겸하는 심기호 회장이 한국어와 영어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바쁜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온주 더그 포드 수상과 연아 마틴 연방 상원의원이 동영상으로 보낸 축하 인사가 이어졌다. 정치인으로 직접 참석한 레이몬드 조(한국명 조성준) 온주 노인복지부 장관은 본인이 협회를 위해 정계를 상대하며 바쁘고 나서 대변 역할을 했던 과거의 에피소드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협회에 대한 애정을 과시해 장내에서 여러차례 박수가 터져나왔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김득환 총영사가 환영사를 했다. 애환어린 동포사에서 자랑스러운 경제단체로 자리매김한 협회와 조합에 대한 자긍심 넘치는 격려사가 주된 내용이었다. 비즈니스 파트너의 대표 자격으로 온주북관공사(OLG) 단칸 해네이 사장과 임페이럴 토바코 법률/대의 협력 담당 총책임 에릭 가농 부회장이 축하 연설을 했다. 두 회사는 이날 행사에 물심양면으로 많은 후원을 했기 때문에 협회에서는 행사장 도처에 로고가 담긴 포스터를 부착해 간접 홍보로 감사의 마음을 표시했다.

자문위원 대표 자격으로 2007년에 20대 협회 회장을 지낸 윤종실 전임 회장이 환영사를 전하며 축하연설 순서가 마무리됐으며 2부 순서인 저녁 식사가 예정된 스케줄대로 7시부터 시작됐다. 한식의 세계화에 걸맞게 주류사회 인사들을 배려한 메뉴가 돋보였다. 뷔페가 아닌 풀서비스의 식사는 행사의 격에 맞는 손님 접대로 적절한 선택이었다는 평가였다. 메뉴에 있어서도 모듬전, 갈비찜, 잡채, 야채 비빔밥이 메인 식단을 구성했으며 후식으로 수정과까지 곁들여지면서 한식 문화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훌륭한 식사였다는 극찬을 비한인 손님들로부터 받았다.

3부 순서에서는 참석한 VIP를 빠짐없이 일일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호명될 때마다 일어나 인사하고 박수로 환영하는 가운데 행사 분위기는 한껏 고조됐다. 앞에서 언급한 축하 연설자들 이외의 주요 VIP로는 온주편의점협회(OCSA) 데이브 브라이언즈 회장, 김정희 한인회장, 조준상

부동산 캐나다 그룹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KEB하나은행과 신한은행 등 금융기관, 세계한인무역인협회 토론토 지부 등 한인커뮤니티 주요 기관이나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동포 언론에서는 한국일보, 부동산 캐나다, 열TV에서 행사를 빠짐없이 취재했다.

공식 행사는 예정대로 9시에 끝났으며 이날 3시간에 걸친 행사 진행 사회는 협회 사업개발 담당 이주녕 직원이 한국어와 영어로 매끄럽게 진행했다. 협회와 조합의 역사를 알리는 주요 장면의 스틸 사진으로 구성된 슬라이드 쇼가 스크린에 무성으로 펼쳐지도록 한 것도 행사 분위기 연출에 도움이 됐다. 심기호 회장이 환영사에서 언급했듯이 무엇보다도 팬데믹이 공식 종료된 후에 50주년과 40주년 행사의 해를 맞게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웠다고 할 수 있다. 이날 참석한 모든 손님들에게는 한국전통자개를 소재로 만들어 고급 공예품 분위기가 나는 명함 케이스와 열쇠고리 한세트가 답례품으로 제공됐다.



행사후 자문위원 등 협회 관련 인사들만 남아 협회 자산 활용의 향후 계획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다. 신계균 부회장이 그간의 검토 결과를 가지고 간략히 내용을 전했는데 이민 1세대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요양원 건립이 여러 방안 중 유력한 안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보고했다. 어떤 안이 나오더라도 협회 회원 모두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에 따를 것임을 강조했으며 구체적 결실을 보기까지는 앞으로 수년의 시간에 걸친 신중한 접근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주) 하이쿨텍 냉동·히팅

“신속하고 끝나는 서비스를 약속합니다!”

Canada Heating & Cooling Licensed Technician

전문적인 기술자가 문체 기술 시너지 효과(Synergy Effect)를 극대화 하였습니다

- 업소용 - 냉동, 히팅, 에어컨, 워킹콜러/후리지, 덕트, 케노피
- 가정용 - 냉장고, 히팅, 에어컨, 전기, 배관 외
- 상업용 - 공장, 상가 및 교회 건물관리 (냉난방 시스템 외)
- 세탁전문점 장비 일체 수리
- 자동차어, 수중모터 및 보트엔진 수리 외

HI-COOL TECH
에어컨 설치 문의 환영
김순석 (Peter Kim)

장거리 출장수리 가능

신용과 책임을 우선 합니다.

416.909.7114

박효진 (Roland Park) BROKERTEAM INSURANCE

Cell (416)985-5287

- 집, 자동차 단체보험
- 상업용 건물, 가게 단체보험
- Beer & Wine 가게 맞춤형보험
- 프로그램스토어 특별할인보험

Main (905)770-8828
Fax (905)770-8851
roland.park@brokerteam.ca

실업인협회 단체보험



50주년 행사 환영사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회장 심기호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올해는 협회 창립 50주년이자 산하 협동조합 창립 4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본부협회는 그 의미를 깊이 되새기기 위해 창립의 주역이었던 선배 자문위원님들과 현역 이사들, 협회와 조합 발전에 기여하고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신 한인 커뮤니티의 원로와 단체장들, 그리고 오랜 세월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온 주요 공급사 관계자들을 모셔서 지난 8월 2일 저녁 식사를 대접하며 환담을 나누고 조연을 들었습니다.

지루하고 힘들었던 팬데믹이 공식 종료돼 대면 모임을 가질 수 있어서 매우 다행으로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회원 모두를 초대할 수 없는 현실적 여건에 아쉬운 마음을 남깁니다만 널리 양해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협회의 회장이자 조합의 운영이사장이라는 직책을 함께 가지게 된 저의 재임 기간에 두 조직의 창립 기념일을 가지게 된 것이 더욱 값지기 때문에 감회가 남다릅니다.

돌이켜 보면 한 조직의 역사가 반세기를 지났다는 것은 그 뿌리가 강건하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울창한 나무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73년에 이민 정착의 어려움을 이겨내며 단합된 모습으로 협회라는 튼실한 울타리를 꾸릴 원대한 포부를 실행하신 선배님들의 용단이 그저 존경스러울 뿐입니다.

이민자들의 나라인 캐나다 역사에서 소수민족으로 70년대 초에 친목과 실익까지 겸한 경제 단체를 구성한 나라는 우리 한국인이 처음이었다는 자부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자긍심에 바탕해 역사를 가꾸어 후배들인 저희들의 오늘이 있게 된 것입니다. 편의점이 주축이었지만 한 때는 거의 모든 한인 자영업자들이 가입해 3000여 명에 육박하던 절정의 시기도 있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지금 전세계 편의점 규모 2위를 자랑하는 캐나다 유통 산업의 자존심인 쿠쉬타르 알리망타시옹(산하 Mac's 현재는 Circle K)는 80년대 들어 1호점을 비로소 오픈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저희 협회가 얼마나 대단한 통찰력과 혜안을 가졌던가 실감이 납니다.

협회가 설립된 후에 우리 선배님들은 주류사회의 도매상을 전전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도매상을 직접 운영해보자는 용기하에 10년만에 지금의 조합을 설립하셨습니다. 육일승천의 기세로 조합은 규모를 키워갔으며 90년대에는 주류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정계와 재계의 모든 인사들이 비상한 관심으로 저희들의 융성 발전에 아낌없는 격려를 보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자랑이자 온타리오는 물론 캐나다 전체 경제계의 한 축을 담당할 당당한 조직으로 꽃을 피웠던 것입니다.

비록 독립 편의점 업계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는 많은 내·외적 요인들이 장애로 작용해 왔습니다만 위기의 고비마다 선배들이 물려준 정신적 자산과 지혜로 잘 극복해올 수 있었습니다. 현재 편의점 업계는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주류 판매 성사가 당면 목표이며 정부의 지나친 통제정책의 완화도 동시에 해결해야 합니다. 이 모든 산적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가일층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중단없는 협회와 조합 발전에 회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과 사업 번영을 기원하며 두 조직의 50주년과 40주년 창립의 해를 도약의 전환점으로 삼아 우리 모두 단합된 정신을 발휘할 것을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영 인사말을 전하는 심기호 회장



더그 포드 온주 수상의 축하 메시지 동영상



연아 마틴 연방 상원의원의 축하 메시지 동영상



VIP 기념촬영(좌로부터 OCSA데이브 브라이언즈 회장, 심기호 회장, 조성준 장관, OLG던칸 해네이 사장)



현담을 나누는 자문위원들



플서비스로 제공되는 전통 한식을 즐기는 파티 시간

2023 OKBA
GOLF TOURNAMENT

OKBA

SEP. 28 (THU)
CARDINAL GOLF CLUB

2740 DAVIS DR. W. KING ON

10 : 30 AM (RESERVATION / LUNCH)

12 : 00 PM (TEE OFF)

* 참가희망 회원은 소속 지구협회장에게 문의바랍니다.



1SOLUTIONS

DATA CORPORATION

ATM & POS TERMINALS

최신 Clover Terminals와 연동

한국인을 위한 POS 기능 탑재

듀얼모니터로 광고기능 탑재

LCBO READY

LOTTO TICKET SCAN

원격으로 실시간 지원

MADE IN KOREA



최고의 퀄리티와 빠른 서비스
1Solutions와 함께하세요!



Service since 2006

www.1solutions.ca

info@1solutions.ca / Toll-Free 1(888)554-7355 Direct Line(905)962-1999 Head Office(416)900-7533

임시총회 소집 공고

선거시행세칙 제 8조 '선거' 1항 '선거를 위한 임시총회'에 의거,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제28대 정.부회장 선거를 위한 임시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일자 : 2023년 9월 18일(월) 오후 1시**
- **장소 : 본부협회 회의실(169 The West Mall, Etobicoke, ON / 416-789-7891)**
- **안건 : 28대 정.부회장 선거 실시**

* 자세한 내용은 본 광고 아래 선거관리위원장 명의의 '제 28대 정·부회장 입후보 등록 및 선거 일정 공고'를 참조바랍니다.

-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회장 심기호 -

제28대 정·부회장 입후보 등록 및 선거일정 공고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8대 정.부회장 선거 일정을 본 협회 정관 제9장 '선거', 제2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입후보자 등록 기간 : 2023년 8월 18일(금)- 8월 28일(월)**
- **등록 접수처 :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선거관리위원회**
169 The West Mall, Etobicoke, ON. M9C 1C2 (TEL:416-789-7891 / FAX:416-789-7834)
(업무시간 월-금 8:30am-5:00pm. 단, 등록 마감일에는 오후 4시까지)
- **입후보자 자격** : 아래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 **정회원** (협회 정관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의 자격, 제1항 정회원 “본 협회의 정회원은 캐나다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소지 하고 정부로부터 면허를 얻거나 등록하여 온타리오주 내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한인으로서 본회가 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 하고 본회의 수익창출에 기여하고 본회에서 결정한 주요 정책사업에 참여하는 자로 한다”)
 - **피선거권자의 제한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협회 정관 제9장 선거, 제27조 피 선거권, 제2항 피선거권 제한 “가. 온타리오주 법과 캐나다 연방법 에 6개월 이상 형을 받은자”, “나.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크게 끼친 자” 및 협회 선거시행세칙 제5조 피선거권 제한 제2항, 제 3항.)
- **선거 일시** - 현장투표 : 2023년 9월 18일 (월) 오후 1시 - 4시
- 우편투표 : 2023년 9월 1일(금) - 9월 15일(금)
* 선관위가 지정한 사서함으로 9월 15일 오후 5시 마감시한 도달 우편물에 한해 유효투표처리 (유권자에게 발송한 우편물이 9월 7일 목요일까지 미도착한 경우, 9월 8일 금요일 하루에 한해 선관위에 재발송 요청 가능)
- **현장 투표 장소 : 협회 회의실 (169 The West Mall, Etobicoke, ON / 416-789-7891)**
- **입후보 등록 서류** : 1. 등록 신청서 1부 (협회 소정 양식)
2. 학력 증명서 각 1부
3. 이력서 각 1부 (협회 소정 양식, 여권용 사진 각 1매 첨부)
4.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 각 1부
5. 추천서 1부 (협회 소정 양식. 본회 정관에 규정된 정회원 20명 이상 서명을 요함)
6. 후보단 기탁금 CD\$3000.00 (은행 보증수표에 한함)
7. 서약서 1부 (협회 소정 양식)
8. 캐나다 정부 발급 신원조회서 (criminal record) 각 1부
9. 선거운동원 명부 1부 (협회 소정 양식, 정회원에 한함)
 - 가. 선거 사무장 1인
 - 나. 선거 운동 사무원 5인 이하
 - 다. 투.개표 참관인 10인 이하

-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선거관리위원장 허창훈 -

국내 소매업 경기 회복력 세계 우위

알버타 소비 복원력 최고 강세



캐나다 소매업 매출 성장이 올해 5월까지 대부분의 외국보다 더 나은 기록을 보여 업계의 안도감을 주고 있다. 이는 국내 소비자들의 소비 복원력이 견실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다. 물론 고물가는 여전히 경기침체의 경고음이 지속적으로 울리고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자신감을 내비치는 긍정적 국면이다.

캐나다 투자상담 전문회사 콜리어스(Colliers)가 최근 밝힌 '2023 Retail Outlook'에 따르면 올해 소매 업계 매출이 물가인상과 고금리의 여파로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소강 국면에 빠져있지만 구매력은 여전히 기본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국내 소매매출은 2.4% 증가했는데 이는 다른 많은 선진국의 실적을 앞지른 수치다. 1.6% 증가를 기록한 아랫 동네 미국은 물론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선진국에 비교가 되지 않는 고무적 결과다.

캐나다 통계청이 6월 중순 발표한 소매매출 관련 새 자료는 여전히 지출과 수요 측면에서 활기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금융비용 증가와 노동시장 약화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로얄뱅크 경제 분석가들은 소비자 지출이 올해 초부터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 1/4분기 기준으로 이전 1년간의 추이는 5.7% 증가했다는 통계수치를 인용했다.

긍정적 회복의 조짐은 올해 1월의 강한 구매력에서 출발했으며 이후 복원력은 1월 대비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증가추세는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힘입어 올 하반기 국내 소비자 구매력은 단단한 기초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콜리어스 자료는 캐나다 소매업 매출이 가장 강세를 보이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생활비가 가능한 지역이었음을 강조했다. 팬데믹 기간에 주별 인구 이동과 관련해 타지역에서의 유입이 많았던 지역(주)을 의미한다. 알버타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 실적이 가장 저조한 곳은 온타리오였

다. 온타리오가 타주로 이전한 인구가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국내 주별 특이사항일 뿐이며 전국적으로는 캐나다의 강한 인구증가세가 성장의 으뜸 동력이다. 최근 정부 발표에 의하면 캐나다가 마침내 인구 4,000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민국가답게 여타 선진국보다 소매 매출 강세를 이끈 주 요인으로 분석된다.

소매업장 렌트는 신규 리스 수요 증가, 낮은 공실률 그리고 부동산 개발의 저조함 등의 요인으로 역대급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결국 기존 쇼핑 중심지에는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미국의 생활 주거 용품 종합 소매 체널인 Bed Bath and Beyond, Nordstrom 등이 캐나다에서 폐업을 했음에도 이 빈 공간들은 급속하게 기존 마켓으로 흡수된 것을 보면 이같은 실정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콜리어 조사담당 이사 아담 제이콥스는 캐나다 소매업 강세 현상을 두고 이렇게 묘사한다. “소매업은 쉽게 죽지 않는다. 캐나다에서 일부 대형 체인 매장들이 철수했다고는 하지만 전체를 조망해보면 캐나다 소매산업은 매우 긍정적이다.”

통계청 자료를 근거삼아 한 신뢰할 만한 기관에서 내놓은 또다른 자료 역시 소비자 소비심리가 회복 국면이며 앞으로도 자신감은 계속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하는 분석이다.

소비자지출지수 기준으로 주별 현황을 보면 5월 기준으로 알버타가 평균 4.3포인트 증가로 최고, 퀘벡이 0.5 포인트로 최저를 보였다. 캐나다 싱크탱크라 일컬을 CBC(Conference Board of Canada)는 국내 소비 강세의 일반적 상황은 고금리와 같은 금융부담 요인들이 영향력 정점을 찍었다고 믿는 소비자들이 저축보다 소비쪽으로 더 많이 움직일 것을 예측했다. 캐나다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4.75%까지 단계적 인상을 하면서 최근 소비 회복세를 언급하고 있다. ■

임금 / 고용에 관한 연방법 개정

고용주들끼리 담합, 형사처벌 최대 14년 징역



직장인 임금과 고용에 관한 캐나다 연방법 일부 조항이 개정돼 지난 6월 23일부터 발효에 들어갔다. 동종 업종의 회사들간에 피고용인에 대한 임금을 담합하거나 피고용인의 전직(轉職)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관련해 고용주와 피고용인들이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아래에 소개한다. 이는 복수의 회사들이 피고용인의 임금 상승을 막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다.

근로자의 임금을 올리지 못하게 하려는 또는 인하하려는 저의로 동종업계 복수의 회사들이 담합을 하면 형사범죄가 된다. 또, 근로자가 여하한 이유로 타 회사로 전직하려고 하지만 회사들간의 담합에 의해 전직을 불가능하게 하는 소위 노 포칭(no-poaching)합의를 하면 이 또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영어 단어 poaching이란 타인의 사유지에서 짐승을 잡거나 죽이는 행위를 일컫는 역사적 연원을 가지는 단어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 근로자를 착취하기 위해 이직을 못하고 한 회사에만 붙들어 매려 는 술책이 횡행하기 시작했다. 유사업종의 회사들이 스카웃 경쟁을 하면(poaching) 근로자의 임금이나 혜택을 인상하거나 확대해야 하기 때문에 업계 전체 고용주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같은 불온한 합의를 자행하게 된다. 쉽게 말해 “우리끼리는 상대 회사 유능한 직원 빼오기 하지 맙시다”라는 신사 협정같이 보인다. 이때 남의 회사 직원을 빼온다(근로자 입장에서 전직한다)는 의미가 poach라는 단어에 추가된 것이다. 이를 하지 않는 합의를 ‘no-poaching’이라고 표현하는 의미가 이해가 될 것이다.

임금과 고용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연방법 ‘공정경쟁에 관한 법률’(Competition Act)이 있는데 지난해 6월에 담합에 관한 조항을 개정해 통과됐고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 6월 23일부터 발효된 것이다.

관련법 시행의 주무관청인 공정거래위원회(Competition Bureau)는 “경쟁 회사들끼리 상품과 서비스 가격 담합을 주도하거나 임금 담합 그리고 근로자 전직금지 합의 행위는 모두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사실 회사들 사이의 건전한 경쟁을 유지 장려하게 되면 근로자 급여가 올라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이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자 자본주의 유지의 근간 중 하나다. 이렇게 돼야 약자의 위치에 있는 근로자의 고용과 복지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방해하는 업자들간의 어떤 담합행위도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동 조항을 위반하면 최대 14년까지 징역형에 처해지며 법원의 재량에 따라서는 벌금도 병과될 수 있다.

개정 전에도 해당법 45조는 상품 가격, 시장 점유, 생산량에 관한 담합은 형사적 위법행위로 이미 규정 돼 있었다. 그러나 근로자와 관련해서는 담합 금지가 적용되지는 않았다. 다만, 구매행위와 관련해서 경쟁 구매자끼리 가격을 막기위한 담합 행위는 90조에서 민사상의 위반으로 규제 대상이었을 뿐이다. 이제 개정 법률은 적용 대상을 넓히면서 동시에 형사 처벌로 규제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위반 시 징역형과 더불어 병과될 수 있는 최대 벌금액은 기존에는 2,500만 달러까지였으나 재판부 재량에 따라 이 상한선에 구애받지 않고 그 이상도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법 적용 범위 예외

근로자 지위 보호를 주목적으로 해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이번 새 개정법은 그러나 상호 소유나 지분 관계가 없는 완전 독립적인 법인체들에에만 적용되며 그룹 계열사간 혹은 모회사에 속한 업체들 간의 행위는 적용시키지 않는다. 또, 담합이 아니라 한 회사가 자체 판단으로 타회사 피고용인을 고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전혀 법에 저촉되지 않는 자유 재량이다. 회사 정책을 그렇게 하겠다는 행위를 막아야 할 아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담합이냐 아니냐가 기준일 뿐이다.

전직(轉職)자유에 관한 에피소드

근로자 입장에서는 전직, 고용주 입장에서는 '남의 회사 직원 뺏어오기(poaching)와 관련한 유명한 사건 하나를 소개한다.

2016년에 미국 실리콘 벨리에서 벌어진 이야기다. LG와 삼성 미국 법인 두 회사가 '고용방해' 집단 소송을 당했다. 당시 LG미국법인 영업부장을 지냈던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고 삼성전자 미국법인으로 자리를 옮기려고 구직신청을 냈다. 그러자 삼성측은 "LG 직원 경력자를 우리 삼성에서 채용하면 안된다. 두 회사는 상대 회사 경력자를 고용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맺었기 때문이다" 라는 답을 했다. 이에 프로스트씨는 이 분야 최고의 실력을 가진 변호사를 고용해 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취지인 즉 "직원들의 이직 기회를 방해해 급여 상상을 제한하고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였다. 고용된 변호사 조셉 셰이버리씨는 이 전례에 구글, 애플, 인텔, 어도비 등 실리콘 벨리의 거대 기업들이 근로자의 전직을 막는 '노-포칭(no-poaching) 합의'를 맺어 근로자에 피해를 끼쳤다는 집단소송 변호인단의 일원으로 참여해, 4억 1,5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아낸 경험을 가진 인물이라 소송의 결말에 귀추가 주목됐었다. 그러나 2020년에야 나온 1심 판결은 '기각'이었고 원고측은 즉각 항소했다. 이후 어떻게 진행됐는지, 결말은 어떤지 보도가 없는 것으로 봐 여전히 진행 중인 것 같다. ■

아동 대상 식음료 광고 규제

무차별 광고 공세 노출에서 아동 건강 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식음료 제품 광고가 지난 6월 28일부터 새로이 발효된 법령의 적용을 받으며 강한 정부 통제 관리에 놓이게 됐다. 무분별한 광고 공세를 차단하고 광고시장의 자체 정화를 목표로 지난 1963년에 설립된 비영리 기구 Ad Standards의 기준이 강화되면서 식품 안전 관련한 아동 대상 광고가 더 철저히 다루어지게 된 것이다. 광고안을 정부에 제출하고 이의 심사를 이 기관에 위탁해 사전심사를 받아 통과 여부를 결정짓는 시스템이다.

이 규정은 Association of Canadian Advertisers (ACA), Food, Health and Consumer Products Canada (FHCP), Canadian Beverage Association(CBA)가 주축이 돼 지난 2년간 검토 작업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 요식업계 관계자, 정부 관리 등 광범위한 이해당사자들도 의견을 제시하며 최종 수립된 결과물이다.

지난 2021년에 작업이 완료됐고 『Code and Guide for the Responsible Advertising of Food and Beverage Products to Children』이라는 긴 이름을 달고 있다. 우리말로 "아동 대상식음료 광고 규정과 지침" 정도로 옮기면 될 것 같다. 13세 미만의 아동을 일차적인 대상으로 삼고 이들의 건강 영양 기준을 충족시키는 제품 광고만 허용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발효 당시 광고주협회(ACA) 회장 론 런드씨는 "아동 영양 보호를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기준을 담은 규정"이라고 자평한 바 있다. 그리고 올해 6월 28일부터 해당 광고주들은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는 Ad Standards Canada에 광고안을 제출해야 하고 이 기관이 사전 심사를 수행해 통과 여부를 가린다.

핵심 충족 기준은 3가지로 요약된다. 광고 내용이 담고 있는 성격과 목적, 광고 전파 방식, 광고노출 시간과 전파 영역이 그것들이다. 더 근본적인 취지는 판단력이 약한 아동들이 건강하지 못한 음식에 대한 단순한 맛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업계 스스로가 책임있고 정직한 광고를 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다.

영양과 관련해서는 지방, 염분, 당분의 지나친 섭취가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결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를 타개하려는 정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사실 아동들은 정크 푸드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돼있고 이의 판매를 부추기는 매혹적인 광고 메시지에 무방비 상태. 영리목적의 기업인들 스스로 자정하는 분위기 조성에 이번 규정 시행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州間 교역장벽 일부 없애야” CFIB 주장

나라 전체 통합 酒類 시스템 시행 절실



준주(準州)를 포함하여 주간(州間) 국내 교역장벽(internal trade barriers)의 일부를 없애자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전국독립사업체연맹(CFIB; Canadian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이 노동분야, 서비스업, 그리고 알콜, 육류와 같은 특정 상품에 대해서는 주 정부들이 나서 현재의 주간 장벽을 제거토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연맹이 지난 7월 초에 발표한 ‘주간협력(州間協力)2023 보고서’ 라는 제 하에서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 이에 따르면 국내 소상공인의 88%가 주, 준주 경계를 기준으로 재화와 용역, 노동인력의 자유로운 흐름을 통제하고 있는 지금의 교역장벽을 정부들이 나서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믿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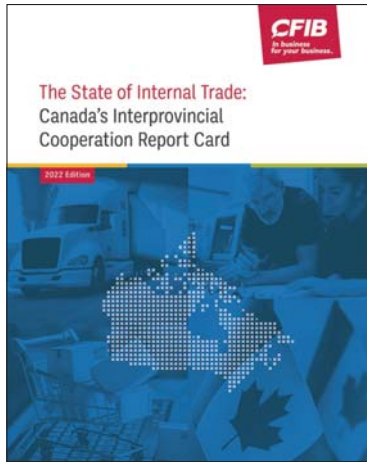
주별로 역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사업인허가의 적용 범위 주 경계 확대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지는 취지인데 예를 들어 주류(酒類), 육류, 치즈와 같은 유가공 제품 등 특정 상품들이 현행 제도 하에서는 주 경계를 넘어설 수 없는 제약을 받고 있다. 쉽게 이해하자면 퀘벡이 편의점에서 술판매를 허용하고 있지만 술 취급 허가를 퀘벡주에

서 받았다고 온타리오주에서 편의점 차리고 술을 판매할 수 없는 것이다. 판매세 구조가 주별로 복잡 다양한 것도 비즈니스 활동의 주경계 확대를 방해하는 또다른 요인이다.

비즈니스 활동 범위 확대를 가로막는 현저히 짜증스러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주류 사업 제한이다. 개인 사업이든 도매와 소매 직거래든 지금으로서는 특정 주에서 타주로의 술 사업은 확대할 수가 없다. 보고서는 사업주의 75% 이상이 주 경계를 허물고 캐나다 국민들이 어느 주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술이라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음을 지적했다. 한마디로 술 판매와 거래를 국내 전체로 통합하는 단일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록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일부 단체들이 현행 제한 시스템을 지지하고 있지만 주별 상이한 정책과 목표, 통제책을 구사해온 긴 역사가 나라 전체의 발전가능성에 해가 되고 있다는 표현도 보고서에 적시돼 있다.

8개 주는 주민들이 타 주로 건너가 술을 사오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물론 인접 지역 애주가들이거나 관광, 친지 방문 등으로 타주에 방문한 김

에 가격이 더 저렴한 것을 알고 큰 물량의 쇼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으나 이 또한 일반 소비자에게 국한된 허용일 뿐이다. 생산 공급 도매 차원의 주 경계 확대 거래는 근본적으로 제한돼 있다. 이것까지 완전히 허용하고 있는 주는 매니토바가 유일하다. 타주에서 소비자들에게 직배하는 것을 매니토바는 전면 개방하고 있다. 반면 노바스코샤, B.C, 사스캐추언은 와인과 독주에 한해서만 타주와 역대 소비자들간의 거래를 허용할 뿐이다.



상황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 예로 술을 들어 자세히 살펴봤지만 CFIB의 주장은 경청할 가치가 충분해보인다. CFIB의 이번 보고서에서 흥미로운 것은 주별 교역 개방 정도를 놓고 점수를 매겼는데 매니토바가 최고 등급인 'A-', 뒤를 이어 앨버타가 'B+' 등급을 받았다. 꼴찌 점수는 퀘벡의 'D'였다.

주목할 점은 서부 주들이 주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서부

주간 新제협약(New West Partnership Trade Agreement)이 좋은 점수 부여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줬다는 평가다. 일부 주들끼리의 자율협약인 이 무역협약은 B.C, 앨버타, 사스캐추언, 매니토바 4개 주에 통용되는 것으로 무역 거래의 규제와 표준을 간소화해 효율성과 개방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고서는 또 이 협약이 건실한 경쟁력을 제고하고 원가를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간 교역장벽 제거 효과 분석

이하에서는 지금의 주별 경계에 갇힌 무역교류 통제 시스템의 불합리와 비효율을 지적한 지난 2020년의 프레이저 보고서의 분석을 간략히 소개한다. 주간 무역거래 장벽을 제거했을 때 캐나다 전체 경제로 보면 어떤 이익이 있는지 수치로 잘 제시하고 있다.

『주간 무역장벽(interprovincial trade barriers)을 제거하면 캐나다 국민 가구당 소득은 6,000달러 이상 증가한다. 더 단합되고 생산력있는 캐나다를 만들기 위해 현재 장벽은 제거되어야 한다. 장벽이 없어지면 B.C주는 실질 GDP가 3% 상승, 앨버타, 온타리오도 대략 3% 상승 가능하다. 캐나다 경제 전체로는 매해 약 900억 달러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며 개인 소득은 연간 2,300달러가 늘어난다. 근로자들의 주 4일 근무도 가능하다. 현재의 시스템이 존속되는 한 주내 기업들의 보호막 기능은 하겠지만 역동성과 생산력은 담보상태일 것이며 노동자의 근로 조건도 주 4일제 가능성 차단을 포함해 개선되기 힘들다.』

참고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간 무역장벽 시스템은 지난 1995년 6월에 체결된 '주간교역협정(AIT; Agreement on Internal Trade)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나마 당시로서는 각 주들 사이의 교역장벽이나 상이한 기준을 간소화하고 통합하지는 취지에서 개선된 협약을 맺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유로운 주간 교역을 방해하는 다양한 규제가 온존하고 있다. 이는 국내문제뿐 아니라 외국과의 무역에서도 비효율성을 낳는다. 각 주마다 상이한 규제와 통제를 자세히 살펴야 하는 상대국의 번거로움은 해외 무역 촉진에 일정부분 번거로움을 야기하고 있다. ■

쿠쉬타르 영업실적 매우 양호



세계 편의점 규모 2위이자 캐나다 최대 편의점 체인사인 알리망타시옹 쿠쉬타르(Alimentation Couche-Tard)의 4/4분기 순익 실적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발표됐다.

지난 4월 30일자로 끝난 4/4분기 실적은 미화로 약 6억 7,000만 달러이며 2022년 동기 4억 7,800만 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증가 실적을 거뒀다.

이같은 견고한 성장은 편의점 영업 분야에서 거둔 비약적 매출 증가, 그리고 유럽 지역 주유소 매출 증가에 힘입은 결과다. CEO 브라이언 하나쉬씨는 "4/4분기 뿐 아니라 회계연도 전체 실적이 강력한 성장을 보여 크게 만족한다"면서 "수년에 걸친 팬데믹 여파, 고물가, 인력 수급 및 공급망 교란 등 글로벌 악재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잘 극복한 값진 결과물"이라고 고무적 평가를 내렸다.

그는 또 최근 성사된 일련의 인수 프로젝트도 회사 발전에 기여한 바

가 크다고 말했다. 쿠쉬타르는 지난해 미국쪽에서 수백개에 이르는 편의점을 인수해 규모를 키웠다.

매출 면에서는 미국 시장 3.3%, 유럽 3.0%, 캐나다 5.9% 성장으로 글로벌 전 지역에서 건실한 성장세를 보였다.

4/4분기 주가 실적도 회사의 낙관적 현황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데 주당 순익이 전 회계연도 동기 대비 거의 30% 가까이 증가했다. (55센트에서 71센트로 증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도 Baa2에서 Baa1으로 상향됐으며 이런 추세는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4월 30일로 끝난 2022-2023 회계연도 1년 실적 관련 주요 수치는 다음과 같다.

- 주당 순익은 전 회계연도 2.52달러 대비 3.06달러로 21.4% 증가
- 주주배당은 전 회계연도 주당 41.75센트에서 53센트로 26.9% 증가. ■

6종 에너지 드링크 리콜

과도한 카페인, 소셜미디어 홍보에 무차별 노출



카페인 성분 함유 에너지 드링크 6개 브랜드가 연방 정부에 의해 리콜 조치를 받고 있는 중이다. 6종의 브랜드는 다음과 같다. Prime Energy, 3D Alphaland, 5 Hour Energy, Celsius, GFuel, Sting.

연방식품검사청(CFIA ;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이 지난 7월 12일에 회수조치(recall)를 내린 이 브랜드들 중 Prime Energy는 요즘 대세인 소셜 미디어상에서 인플루언서를 통해 열띤 홍보가 벌어지던 중이라 특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CFIA 측은 공식 사이트에서 경고 메시지를 통해 “함유 카페인 허용치와 라벨 요건을 다양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6종 모두 전국 단위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며 온라인 상에서도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유럽에서는 물량이 부족해 비싼 가격에 팔릴 정도로 인기 높은 프라임 에너지의 경우 소셜 미디어 스타 로간 폴과 KSI가 공동 창업한 회사 제품이기 때문에 세인들의 관심이 더 쏠린다. 이들은 수백만의 젊은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다.



연방 보건성은 캔 당 카페인 허용치를 180밀리그램으로 정하고 있는데 프라임은 200밀리로 알려졌다. 회사명 Prime Hydration Inc.와 같은 브랜드명인 Prime Hydration은 다카페인 제품으로 병에 들어 있어 문제의 Prime Energy와는 성격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카페인 함유 에너지 드링크는 건강보조식품으로 분류돼 정부의 규제 대상이 된다. 이들은 그래서 영어와 불어 이중 언어로 라벨이 명기되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있어서 리콜의 또 다른 사유가 됐다. ‘스탕’은 아예 두 언어 대신 베트남어로만 표기돼 있을 뿐이다.

정부가 카페인 함유 에너지 드링크에 대해 각별한 관리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미성년자들 사이에 이들 제품군이 광범위한 인기를 누리기 때문이다. 18세까지의 미성년자는 체중 대비해 킬로그램 당 최대 2.5밀리그램의 카페인까지만 섭취가 권장되고 있다. 콜라 한 캔에는 34밀리그램의 카페인 들어 있다. 프라임 에너지와 비교하면 1/6에 불과하다.

에너지 드링크의 카페인 함유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높은 설탕 함유도 기성세대들의 걱정을 낳고 있다. 자녀들의 건강때문이다. 그럼에도 더 우려되는 것은 카페인이다.

9세인 자녀를 둔 캘거리의 영양사 제니퍼 하우스씨는 아동들이 프라임 에너지 광고 홍수 특히 온라인 동영상물에 무차별 노출돼있음을 심하게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머리가 좀 큰 자녀들은 부모들이 문제의 에너지 드링크들에 대해 경고를 해도 외부에서 자기들끼리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실질적 통제력을 발휘하기 거의 불가능한 상황을 개탄한다. 친구들을 통해 얼마든지 유포되고 소비된다. 고등학교에서도 자판기에서 에너지 드링크를 얼마든지 뽑아 마실 수 있는 세상이다.

보건부는 아울러카페인의 지나친 섭취가 임신부와 모유를 수유하는 산모들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

불법 베이핑 범람하는 미국

FDA 강력대응 무색



미국 베이핑 시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식품의약품처리의 발본색원 의지를 비웃듯 수천가지의 불법유통 베이핑 제품이 창궐하는 모양새다. 이하 위싱턴발 AP통신 기사를 토대로 미국 시장의 현황을 소개한다.

미국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전자담배 종류가 지난 2020년 이후 이전 대비 거의 3배 이상 증가했다. 중국에서 홍수처럼 밀려들어오는 미승인 일회용 베이핑 제품 때문이다. AP가 자체적으로 엄정하게 판매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무질서한 베이핑 시장을 반듯하게 하려는 식품의약품(FDA)을 비웃는 듯한 기세다. 미성년자들이 향가미 베이핑에 쉽사리 빠져드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여러차례 천명했음에도 불과 3년이 지난 사이에 벌어진 현상이다. 일회용 전자담배의 대부분은 사용 후 곧바로 버려지는데 이를 수집해 조사해보니 달달한 과일 맛, 특히 핑크색 레모네이드, 거미 배어, 수박 맛이 미성년자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FDA의 승인을 얻지 못하고 유통되는 불법 제품들이다.

한때는 틈새 시장 정도로 여겨지던 값싼 일회용 베이핑 제품의 매출규모는 현재 전체 전자담배 시장 약 70억 달러(미 달러 소매가격 2022년도

기준)규모의 40% 전후를 차지하고 있는 놀라운 수준이다. 이 같은 추산은 편의점을 포함한 전자담배 취급 소매업소의 바코드 스캐너 자료를 정밀 분석해 얻은 수치여서 신뢰도에 전혀 이상이 없다.

현재 미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갖가지 향가미 일회용 베이핑 제품 종류가 5,800가지나 된다. 2020년 초기에는 이전대비 365%가 증가했으나 지금은 거의 1,500% 증가를 보이고 있다. FDA는 멘솔향을 제외한 모든 향가미 베이핑을 금지시켰는데도 이런 급증은 놀라운 모습이다. 또한 유술과 같은 카드리지 기반 전자담배도 미성년자의 베이핑 만연 현상을 낳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트럼프 시절 FDA가 일회용 베이핑 제품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를 했고 많은 미성년자들이 유술 제품에서 새로운 유형의 향가미 제품으로 돌아섰다. 어정쩡한 통제책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은 셈이다. 이 현상을 연구해온 스텐포드 대학의 로버트 제클러 박사는 "FDA는 나름 신중한 행보를 보였으나 업계가 이를 악용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베이핑 산업이 거듭 범망을 피해가며 미성년자 유혹을 불려 일으키는 진화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FDA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중국 남단 광둥성 심천(圳深 Shenzhen)이 베이핑 제조 허브 역할을 하며 지구촌 보급기지가 돼 있는데 미국으로서는 접근할 방법이 거의 없다. FDA 조사관들이 중국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워낙 규모가 방대해 빙산의 일각 정도만 만지는 정도다. 물론 미국에서 소비되는 전자담배의 대부분은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는 있다.

담배 관련 규제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패트리샤 코바체비치씨는 "FDA가 이론적으로는 해외 제조설비 실사 권한을 가지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 밖으로까지 힘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설명한다.

정품 일회용 베이핑의 대명사인 Elf Bar, Puff Bar와 같은 메이저급 브랜드들도 많지만 새로운 형태의 베이핑 응용작품들이 매달 평균 수백가

지가 쏟아지고 있다. 회사들끼리 잘나가는 브랜드 디자인을 기가 막히게 잘 모방해서 진짜와 짝퉁의 경계가 애매하다. 군소 회사들은 로고와 디자인, 그리고 가미되는 향과 맛의 샘플을 중국 제조사들로 보내기만 하면 원하는 신제품을 손쉽게 확보한다. 불과 몇주만에 근사한 짝퉁 제품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만개가 보내진다.

미국 정계, 학부모 조직, 정품 베이핑 회사들의 무차별 압박에 직면한 FDA가 마침내 지난해에는 정품 취급 소매업소까지 포함해 200개 이상의 업소에게 경고서한을 보냈다. 주로 미성년자에게 인기있는 일회용 베이핑 제품을 취급하는 업소들이다. 3개 브랜드에 대한 수입을 금한다는 구체적인 명령도 발동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3개 브랜드 매출은 전체 일회용 제품 매출에서 14%나 차지했다. 여타 수십개 금지해야 할 브랜드들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단지 3개 브랜드에게만 내린 조치였음에도 말이다.

FDA 담배 담당 이사 브라이언 킹씨는 FDA의 불법담배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한다. “행정조치에 만병 통치약은 없지만 포괄적 접근, 즉, 제조, 수입, 보급, 소매채널에 이르기까지 포괄적 접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실패는 이와 달리 킹 이사의 말을 공허하게 들리게 한다.

FDA는 과도한 업무와 씨름하는 기관인데 지금까지 임무와 사명을 잘 수행해왔다. 판매 허용을 원하는 제조사들의 베이핑 신제품 신청이 지금까지 총 2,600만 건에 달하는데 이를 심사하고 가부를 결정했다. 이에

이미 출시돼 시장을 나도는 제품까지 포함되는데 킹 박사는 “출시전 사전 심사”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는 FDA가 되고 싶다고 희망을 피력했다. 한편, 부모 조직들과 건강 관련 NGO단체들 그리고 정품 생산 메이저 회사들은 향가미 일회용 베이핑 제품 시장을 FDA가 철저히 소탕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공룡급 담배회사들은 이 문제의 대대적인 이슈화에서 몸을 살짝 사리는 모습이다.

대표적으로 레이놀즈 아메리카를 들 수 있다. 이 거대 담배회사는 산하에 'Vuse'라는 유명 전자담배 제조라인을 거느리고 있다. 올해 초에 회사는 FDA에 베이핑 제품 중 향가미 제품만 통제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앞서 언급한 킹 이사는 FDA의 단속 권한이 강대해서 법의 허점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전임자 미치 젤러씨의 말은 다르다. 트럼프 시절 향가미 제품 금지에서 일회용 제품에 예외를 둔 것이 화근이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은퇴한 젤러씨는 “미연에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었다면서 예외를 두지 말자는 주장이 어필하지 못했음을 아쉬워했다. 2019년 9월에 트럼프 행정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향가미 전자담배 제품을 금지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재추진 기기 이용 전자담배이든 일회용이든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인 금지책이었는데 주변의 정치적 조력자들이 유권자 표를 의식해서 한발 후퇴를 종용했다. 대신 이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몇달이 지난 12월에 향가미 제품 금지에서 일회용 제품은 제외한다는 후속 발표가 나왔다. ■

KCWA FAMILY AND SOCIAL SERVICES

2023년 8월 프로그램

• KCWA 노스욕센터 사무실: 5075 Yonge St., #401, North York
 • KCWA 배더스트-핀치 사무실: 540 Finch Ave. W., North York

4 - 6 학년을 위한 코딩의 세계 대면

- 일시: 8월 14 - 18일 (총 5회)
월 - 금요일 / 오후 1시 30분 - 2시 30분
- 대상: 4 - 6 학년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영주권자이거나 난민인정자 (선착순 최대 10명)
- 담당: 정착상담원 강선하 (문의: 416-340-7166)
- 내용: 게임을 활용한 기초 코딩 프로그래밍 배우기 및 실습

일상 생활에 유용한 온타리오주 법률 상식 온라인

- 일시: 8월 14일 (월) / 오전 10시 - 11시 30분
- 담당: 정착상담원 심한주 (문의: 416-340-1653)
- 내용: 1. 일상 생활과 관련되는 온타리오 주정부 처벌법(POA) 소개
2. 흔히 일어나는 법률 위반 사례
- 교통법규, 조려위반, 환경범죄, 직장 안전 위반, 주류 라이센스 위반 등
3. 약식 유죄 판결 절차 4. 효과적인 자기 변호법

7 - 10 학년을 위한 인공지능 음악 (AI Music) 대면

- 일시: 8월 21 - 25일 (총 5회)
월 - 금요일 / 오후 1시 30분 - 2시 30분
- 대상: 7 - 10학년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영주권자이거나 난민인정자 (선착순 최대 10명)
- 담당: 정착상담원 강선하 (문의: 416-340-7166)
- 내용: 1. ChatGPT를 이용한 가사 및 코드의 기본적인 틀 만들기
2. Chrome Music Lab으로 기초 다지기
3. 작곡 AI 'AIVA'와 'Soundraw'를 사용하여 음악 만들기
4. 다양한 작곡 AI 프로그램 활용법 배우기

온타리오 법률구조 알아보기 온라인

- 일시: 8월 25일 (금) / 오전 10시 - 11시
- 담당: 가정상담원 조목인 (문의: 416-340-1527)
- 내용: 1. 법률구조의 역할 2. 서비스 이용절차
3. 재정조건 및 제한사항 4. 법률 리소스

부모 / 조부모 초청 프로그램 알아보기 온라인

- 일시: 8월 30일 (수) / 오전 10시 - 11시
- 담당: 선임 정착상담원 최성혜 (문의: 416-340-1739)
- 내용: 1. 부모 / 조부모 초청 프로그램이란?
2. 부모 / 조부모 초청 준비를 위해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
- 스폰서의 자격과 부담의무 - 소득 요건 - 초청의향서
3. 슈퍼 비자의 지원 조건

* 사전등록 필수

* 효과적인 내용 전달과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세미나 참석인원 제한 가능

2023 올해의 캐나다 우수 상품 25選

건강 식음료 다수 선정



해마다 국내 소비자들이 뽑은 분야별 '올해의 캐나다 우수상품' (Product of the Year Canada) 선정 목록을 소개한다. 이 프로그램은 3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전세계 40여개 이상의 나라들이 동일한 취지하에 자국 상품에 대한 소비자 평가 선발 행사를 동시에 가진다.

소비자 4,000명이 투표에 의해 25분야별 우수 상품을 선정하는데 스낵과 음료 등 편의점 분야의 상품들도 포함돼 있어 업주들의 관심을 집중시킨다. 주로 신상품으로 주목할 혁신을 이룬 품목들이 우수 판정을 받는다. 조사를 수행한 기관은 칸타르(Kantar)는 세계 정상급 시장 조사 기관이며 컨설팅 업체이다. 100개국 이상으로부터 시장 조사를 의뢰받고 있으며 포춘지가 선정하는 세계 500대 기업 중 절반 이상의 회사들을 고객으

로 삼고 있다. 또 그 기능성, 디자인, 포장, 함유성분 등 다양한 요소들이 눈भाव과 귀भाव으며 미각 까탈스런 소비자들의 기호와 취향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선정 상품의 신뢰도는 추호의 의심을 받을 염려가 없다. 또한 예비 후보들로 뽑힌 이 상품들은 최종적으로 전문가들의 재평가를 거쳐 최종 25개 상품이 가려지기 때문에 사계의 권위자 안목도 충실히 반영돼 있다. 편의점 분야와 관련해서는 건강 스낵, 건강 음료 등 웰빙과 직결되는 품목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5개 품목군 중 요즘 한창 화제가 되고 있는 식물성 기반 유제품(plant-based products)에 두개 품목이 선정됐다는 점도 관심을 끈다. 캐나다 국민들로부터 큰 사랑과 인기를 누리는 제품과 회사들은 어떤 것들일까... (괄호안은 공급처/제조사명)



1. 에피타이저
Columbus Charcuterie
Tasting Board (Hormel
Canada)



8. 치즈 스낵
Armstrong Cheese Combos (Sa-
puto Dairy Products Canada)



2. 간편 조리기구
Vida by PADERNO 12" Outdoor
Gas Oven Pizza (Canadian Tire)



9. 초콜렛
Caramilk Salted Caramel
(Mondelez Canada)



3. 미용
Garnier Vitamin C Brighten-
ing Serum (L'Oreal Canada)



10. 아삭이 에피타이저
(Crispy Appetizer)
Western Family Tempura
Fried Pickle Chips (Patti-
son Food Group)



4. 웰빙 스낵
Go Pure Soft Baked
Oatmeal Bars (Biscuits
Leclerc)

11. 딥스
Renee's Dips (The Kraft Heinz Compa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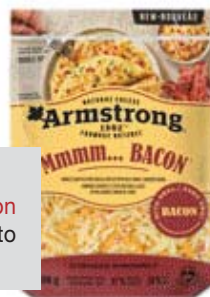


6. 아침 간편식사
All-Day Breakfast Mini Quick
Cook Hash Brown Patties
(Cavendish Farms)

5. 식빵
Country Harvest Everything
Bread (Wonderbrands)



12. 생수
Bai Antioxidant Infusion (Keurig Dr Pepper Canada)



7. 치즈
Armstrong Cheese Mmmm...Bacon
Natural Shredded Cheese (Saputo
Dairy Products Canada)

13. 냉동 애피타이저
Western Family Everything Bagel
Bites (Pattison Food Group)





14. 글루텐 프리 식품
Oreo Gluten Free (Mondelez Canada)



20. 식물성 기반 유제품
Babybel Plant-based (Fro-mageries Bel Canada)



15. 가정용 일회 소모품
Mouche Bamboo Facial Tissues (Mouche Inc.)

21. 기성 조리음식
Longo's Tahini Filled Falafel Bites (Longo Brothers Fruit Market)



16. 주방/요리 기구
KitchenAid Shave Ice Attachment for Stand Mixers (Whirlpool Canada)



22. 크레커
Crispers Fiery Jalapeño (Mondelez Canada)

23. 일반 스낵
Chips Ahoy! Mashup (Mondelez Canada)



17. 매트리스
Tempur-Align Medium Mattress (Tempur-Pedic)



24. 스프/소스
Cracker Barrel Cheese Sauce Kit (Lactalis Canada)



18. 개인생활 잡화
Dove Refillable Deodorant (Unilever)

25. 환경친화 생활용품
Ziploc Compostable Sandwich Bags (SC Johnson)



19. 식물성 기반 유제품
Silk Nextmilk (Danon Canada)



이상으로 캐나다 소비자들이 뽑은 품목군별 대표주자 25가지 상품을 살펴봤다. 더 상세한 정보를 원하면 공식 웹사이트 <https://productoftheyear.ca/winners-2023>을 방문토록 한다. 제품의 특성, 제조사, 구입처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Special Sale

Sincere Trading of KBA Aug 15 - Sep 14



REUSABLE BAG
(bundle of 50 bags)
\$12.50



POWERADE
Grape Sport drink 24 x 591ml
Reg \$19.99 **Spe \$5.99**



COCA COLA
Monster 12 x 473ml Original only
Reg \$25.19 **Spe \$22.99**



COCA COLA
Vitamin Water 12 x 591ml
XXX acai blueberry
Reg \$20.79 **Spe \$12.99**



RED BULL
24 x 250ml Original only
Reg \$46.35 **Spe \$41.99**

24 x 355ml Original only
Reg \$63.80 **Spe \$53.99**



JONES
Soda 12 x 355ml Reg \$13.59 **Spe \$11.99**



GRACE
Coconut Water No Sugar 12 x 500ml
Reg \$20.35 **Spe \$15.99**



■ KBA 협동조합

169 The West Mall, Etobicoke(사무실) (416) 789-7544
 169-175 The West Mall, Etobicoke(매장)
 -----(416) 867-1444

■ 복권관련

AGCO (복권 판매 라이선스 관련) ----- (416) 326-8700
 1(800) 522-2876
 OLG ----- 1(800) 387-0104

■ 음료

Coca Cola Bottling Company ----- 1(800) 241-2653
 Pepsi Bottling Corp. ----- (905) 568-7909
 1(800) 387-8400

■ 우유

SAPUTO(Neilson Dairy) ----- 1(800) 663-4724

■ 아이스크림

Nestle Icecream ----- 1(800) 500-5634

■ 스낵

Frito Lay Canada ----- (905) 460-2414
 South Cove ----- (905) 829-3666
 Conagra Brands Canada ----- (416) 679-4200

■ 샌드위치

Classic group of companies ----- (905) 470-1926
 A Biz Gourmet(Shirley 부사장) ----- (416) 665-1052

■ Meat Jerky

Great Canadian Meat ----- (905) 666-9395
 Conagra ----- 1(888) 639-7868

■ 초코렛 / 캔디

Nestle Chocolate ----- 1(800) 500-5634
 Mars Canada Inc ----- 1(800) 565-0147
 Hershey Canada Inc. ----- 1(800) 268-1304
 Mondelez(Cadbury/Christie) ----- 1(855) 535-5648
 Wrigley Canada ----- (416) 442-3298

■ 담배

임페리얼 ----- 1-(800) 818-2771
 JTI ----- 1-(800) 363-0490
 RBH ----- 1-(855) 333-5001

■ 잡지

TNG ----- 1(800) 201-8127

■ 광고 미디어 전문 대행 회사

Adapt Media ----- (416) 856-4466

■ 법률관련

변호사 이영동 ----- (905) 272-4339
 아담유 합동 법률그룹 ----- (416) 739-8887

■ 금융 / 회계 / 재정 / 보험

Bank of Canada(위조지폐) ----- 1(888) 513-8212
 신한은행 ----- (416) 250-3550
 외환은행 ----- (416) 222-5200
 이방록 회계사 ----- (416) 221-2009
 보험증개인(박효진) ----- (416) 985-5287
 CIBC모기지(현광환) ----- (416) 888-0404

■ 언론사

한국일보 ----- (416) 787-1111
 중앙일보 ----- (416) 736-0736
 Globe and Mail ----- 1(800) 387-5400
 National Post ----- (416) 383-2500
 Toronto Star ----- (416) 367-4500
 Toronto Sun ----- 1(800) 668-0786

■ 장비 설치 수리

Cool Air Cleaning ----- (416) 224-0020
 Hi Cool Tech ----- (416) 909-7114

■ ATM / Debit

Moneris Solutions ----- 1(877) 789-5335
 1Solutions ----- 1(888) 554-7355

■ PREPAID CARD

Atlantic Prepaid ----- 1(888) 479-7779
 Now Prepaid ----- 1(800) 253-2111

■ 기타

Kocom ----- (416) 769-3532
 DSC Digital System ----- (416) 255-6549
 David Health International ----- (647) 726-1010
 Butterfly Fashion ----- (416) 785-5999
 원도매상 ----- (416) 661-6664
 David Whole Sale ----- (416) 419-3751
 Yeno Trading ----- (647) 967-6561
 용역 회사 Tyson Lee ----- (647) 545-0922

■ 인벤토리

HY인벤토리(차대레) ----- (416) 892-5566



OKBA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169 The West Mall, Etobicoke, ON. M9C 1C2 / Tel(416)789-7891 Fax(416)789-7834